

연중 제30주일

기도서 465면 (B해)

제1독서 : 예레 31, 7 - 9

제2독서 : 히브 5, 1 - 6

복음 : 마르 10, 46 - 52

# 숲정 이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 하였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갔다’  
(마르 10, 51 - 52)

## 강론

### “비옥한 밭을 가꾸는 농부”

황 인규 신부 / 요존주임

매년 10월 세계주일은 전교주일이다. 전교주일이 제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1822년경 불란서 남부에 위치한 리옹이란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던 17세의 소녀 바올리나 바리네 자 리코라는 여공이 여의치못한 살림에도 푼푼이 금품을 모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멀리 해외로 떠나는 선교사들의 여비를 보태주어 기도와 회생으로 그들을 도와왔다. 이 취지에 그녀의 동료들이 하나 둘씩 참여하여 리옹 뿐만 아니라 불란서 전역에까지 파급되었고 30년후는 유럽에까지 널리 이 운동이 확산되어 100년이 지난 1922년에는 교황비오 11세에 의해 전교회로 정식 교황청 사업으로 승격되면서 전 세계교회로 확산되었다. 그 후 1926년에 와서 매년 10월 끝에서 두번째 주일을 전교주일로 정하고 선교사와 선교지역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왔다.

전교란 파견을 뜻한다. 매미사 끝에 사제는 모두에게 이 파견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복음선포의 사명은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예수께로부터 다시 파견된 사도들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공동체의 소명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파견된 사람들이다. 또한 우리는 세계를 통하여 이 웃에게 말과 모범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그리스도의 증거자임을 새롭게 다짐 하였다.

“교회는 그분을 모셔가고 그분을 설교하고 그분을 증거 하여야 하며 그분을 사람들에게 넘겨드려야 한다. 그리고 백마디 권고나 권유보다는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인다운 증거를 보여주기를 요구한다”는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대로 말과 모범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화 이스트」란 잡지에 일본의 전교와 우리나라의 전교를 비해서 쓴 글에, 일본의 전교는 토박한 산비탈 밭을 가꾸는 농부와 같아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에 비하면 소출은 신통치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옥한 밭을 가꾸는 농부와 같아 적은 경비와 인원을 드리고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비유하고 있다. 이 좋은 기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일이다. 팔짱만 끼고 뒷전에 서서 방관자적 입장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종 신심 단체나, 레지오 마리에 대열에 적극 참여하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어린이 이든 어른 이든 모두 전교회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은 교회에서 이제는 베푸는 교회로 면모를 일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 하겠다”(마태10, 22).

## 소리

### 오송회 사건은 끝난 것인가...

긴 세월동안 암흑 속에 팽개쳐졌던 악몽같은 사건들이 하나하나 두터운 허울을 벗어던지고 우리앞에 서려하고 있다. 박창신 神父의 절룩이는 다리 속에 숨어 있었던 테러 사건이 그렇고, 한 때 신문 사회면을 화려하게 장식했고 ‘간첩사건’ 오송회가 그렇다.

성당 안에서 성직자가 칼로 찢리고 쇠파이프로 온몸을 구타당한 박신부 테러사건은 우리의 비겁과 무관심으로 8년 동안 어둠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새싹처럼 우리앞에 솟아나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라는 굴레 때문에 기억너머로 사라질뻔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국의 재수사를 지켜보는 눈길이 뜨겁다. 그러나 막상 재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한 지 열흘이 넘도록 원점을 맴돌고 있다. 목격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해서는 아예 고개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법과 정의의 편에 서고 있다는 수사당국에 게 우리는 외친다.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볼 것이다. 악몽의 8년 세월동안 눈앞에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용기없음을 눈밑에 깔고 바라볼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밀실에서의 갖은 고문과 불법구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들이 과연 끝난 사건인가, 끝날 수 있는 것인가?

애당초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높은 신 분들의 국정감사도 이 두 사건을 제대로 다뤄보지도 않은 채 질문만 무성히 쏟아 놓고 주마간산격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국정감사보다 백배 천배 더 무서운 우리들 양심의 감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같이 양심의 질책을 시달리고 있는 우리는 제2의 박 神父, 제2의 오송회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사건을 또렷히 지켜보고 또 그 의미를 뼈에 새겨 잊지 않을 것이다.

### 숲정이 산책



### 더 잘 할 수 있다

교회는 매월 10월의 끝에서 두번째 주일을 전교 주일로 정하여 전교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선교지역을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돕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는 1822년 프랑스의 리용에서 전교회(傳教會)가 창설된 후 1922년 이 사업을 교향청 사업으로 승격시키면서 비롯한다. 한국교회는 1970년 주교회의의 임시 총회에서 전교주일이 들어 있는 10월을 전교의 달로 정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온세계 교회에서 특별헌금과 기도회, 모금운동을 벌인다. 그리하여 모두 교황청으로 보내지고 성령에 모여진 이 헌금은 세계 방방 곡곡의 전교사업을 후원하게 된다. 우리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되었으나 나의 작은 정성이 온 세상의 복음 전파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봉헌해야겠다.

또한 이 기회에 교회는 본디 '선교하는 교회'임을 상

기해야 한다 (선교에 관한 교령2).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함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요근래 부쩍 늘어난 교우수, 성전을 지어도 지어도 비좁기만 하는 교우들의 열성을 바라보며, 세계 최고의 살아 있는 교회라고 좋아함도 일리는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었고, 더 잘 할 수 있다.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된지 200여년, 이제 그 역사가 백년 밖에 안된 개신교에게 '신도가 최고 많은 교회'의 자리를 내어준 이 엄청난 사실을 무엇으로 변명하겠는가? 1884년 개신교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딜쫘 우리는 이미 13,623명의 신도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백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개신교의 3분의 1도 채 안되는 소수 교회로 전락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오늘은 전교주일! 보다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전교를 다짐하자.



## 성서와 함께

### 24. 성서시대의 역사(F) : 초기 왕정시대

이 시기는 대략 1020-920 BC의 100여년 동안이다. 이 기간 초기에 이스라엘엔 아무런 정치적 구조가 없었으나 말기엔 하나의 전제군주 밑에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다. 네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거론된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적 블레셋(필리스테) 사람들을 때낼 수 없다. 블레셋 인들은 팔레스타나의 남서연안에 자리잡고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해왔던 해양민족이었다.

우선 사무엘은 예언자, 사제, 환시가, 중개자, 왕의 추대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던 백성의 지도자였다.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사무엘 전서 1, 1-25, 1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엔 전설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추대되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는 왕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다. 한번도 옥좌에 좌정해서 백성을 통치하지 않았고, 언제나 전쟁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오직 북쪽 지파들만 다스렸다. 그의 비극적인 생애와 종말은 사무엘 전서 9-31에 잘 나와 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戰士)요 정치가였다.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왕도 수도도 궁전도 없는 폐쇄한 부족들로 형성되었고 도처에 블레셋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다. 이와 반면 다윗이 죽었을 땐, 이스라엘이 남으로는 에집트에서 북으로는 다마스쿠스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지닌 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통일과 건고한 수도와 거룩한 도성과 왕국을 가져다 주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 전서 16, 13에서지만 그의 통치와 죽음에 대해서는 사무엘 후서 전체 그리고 열왕기 전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선 열왕기 전서 1-11이 전해주는데, 그의 명화가 지혜에 대한 그의 명성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는 전사(戰士)가 아니었고 외교가요, 탁월한 통치자였다. 공무원들을 대량으로 기용하여 세금과 무역에 있어서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으며, 성전과 궁전을 화려하게 건축하였다.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열왕기 전서 3, 5-15에 나오고, 부정적인 평가는 시온산에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유했던 그의 이방인 부인들에 대한 기록인 열왕기 전서 11, 1-8에 잘 나타난다.

드디어 솔로몬의 우상숭배는 예언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다. 환시 예언자들 이외에도(사무 전 10, 10; 19, 20) 다윗의 예언자들로서 잣과 나탄이 등장한다. 이외에 이 시기에 중요한 사건들로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결약의 계를 시온산으로 옮긴 것과 성전의 계속적인 건축이다. 이 두 가지는 시온만이 야훼께서 제사예식을 위해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라고 믿는 신명기적 신앙을 싹틔게 했다.

#### 중앙화장품백화점

(종합선물의 집)  
20~40% 할인  
\* 결혼세트 특별우대판매  
임영자 (마블레나)  
중앙성당 정문옆  
☎ 4-0841

한복·약혼·무용·파티·결혼

#### 고려주단

전광원 (마르코)  
김삼례 (소피아)  
전주시 교사동(신혼예식장 골목)  
☎ 6-1902

출산준비물, 유아복, 유아용품

#### 모아방

효자체인점  
황상문 (오썸)  
김계선 (하이진디)  
효자동 서부시장옆, 효자성당앞  
☎ 82-2049

#### 효자속셈전문학원

유치부·국교부  
중등부 수학전문  
정회연 (디미아노)  
이경애 (로마나)  
광진 목화APT 정문앞  
☎ 83-4827

교 구 소 식

5인 시복시성을 위한 금요미사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 (지하성당 완공 때까지 계속합니다)  
 장소 : 치명자산 루갈다 묘역(고백성사 있음)

1. 혼인강좌 : 30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참가비-1인당 5,000원
  2. '89년도 초·중·고 교리교사 수첩 신청안내 : 대상-본당 초·중·고 교리교사 신청 27일(목)까지 교육국(85-0041) 가격-1권 2,000원(예정)
  3. 제2차 꾸르실로 교육 봉사자 연수회(지난번(10.8-9)연수회 불참자를 위한) : 일시-11월6일(일) 오전9시30분 등록-오후6시 참가비-1인당 10,000원
  4. 10월중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28일(금) 밤 11시 장소-전동 천주교회 소강당
  5. 소년 꾸리아 30일 미리내 순례 : 본당 소년Pr. 인원 25일까지 (85-0041) 연락바람
  6. 광주 가톨릭대학 8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 ①모집인원-계열 인문계, 입학정원-80명, 선택과목-제2외국어, 실업 중 택1②원서교부및 접수-88년도 11월15일-11월23일 평일(오전9시-오후5시) 토-오전9시-12시(주일은 제외) 장소-교구청 교육국(85-0041) ③편입생 모집(약간명)-응시자격(타 대학 졸업및 예정자) 시험과목-교리, 영, 불, 독어중 택1, 원서교부및 접수-신입생과 동일
- ※ 축! 영명 성 시문과 유다(28일) : 박중산 한봉섭신부님 "축하합니다"  
 ※ 강우일주교 세계성체대회 대담녹화방송 : K.B.S 2 "11시에 만납니다" 10월 25일

"초대합니다"

5인 시복시성을 위한 제2회 그레고리오 합창발표회

- 일시 : 1988. 11. 6 (일) 오후 3시, 7시30분
- 장소 : 전북학생회관 ● 주관 : 천주교 전주교구
- 주최 : 전주교구 연합성가대 ● 후원 : KBS, 전주총국, MBC, 전북일보

잠깐!

우리 교우 최고다!

지난 16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한국 성체대회는 한 마디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새벽부터 전국 14개 교구에서 모여온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번도 만나 본적이 없는 남남이였지만 결코 타인(他人)이 아니었다. 누가 그곳에 6만의 인과가 모였다고 말하겠는가? 9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퇴장까지 4시간이 넘는 긴 시간, 단 한 사람의 이탈자도 눈에 띄지 않았다. 피곤한 몸에도 불편한 좌석이였지만 마냥 열심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모습은 '우리 교우들 정말 최고야!' 하는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다. 하늘도 이에 화답이나 하는 듯, 대형 십자가 구름이 하늘을 메우고 성체 모양의 붉은 해무리가 감격을 더해 주었다. 진정 벽찬 감격의 순간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행사를 마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교우들의 마음 마음마디는 어떤 아픈 결단이 서려져 있었다. 이는 그날따라 유난히 떨리는 목소리로 혼신의 힘을 다해 토해내신 추기경님의 강론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세상이야 어떻든, 성체 안의 하나로써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 신자들은 갈수록 깊어만 가는 세대간, 계층간, 특히 지역간의 깊은 골을 메꾸 나가야 한다"하신 말씀을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하는 우리들의 처지이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이 큰 과제를 깊이 묵상해야 되리라!

요심이 (794) 김병오



하 나 회

장애자 기술교육기금 마련  
 일일차집  
 구 성모병원 옥상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 범석 (골배)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대학교 앞 덕진성당 옆  
 ☎ 72-2665  
 75-3533

광명안경원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집  
 박 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 화동 (프리스카)  
 오거리 나정형외과 앞  
 ☎ 74-1123  
 3-6709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생기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외과 내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균신경외과의원

부설 : 물리치료실  
 원장 신 일균 (아오스딩)  
 윤 귀자 (로사리아)  
 병원 84-7288 자 8-8417  
 관동로 전주백화점→다가교 중산

한방보약·예방의약  
 용(元茸) 九蒸芩 인삼



영 세 당 약 국

약사 정 우진 (OIA의) 황 신숙 (리빙가)  
 전주시 완산국교 사거리 ☎ 6-6422, 6-5326 \* 일요일은 휴무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77-1711 보좌신부 **김진룡**  
 수·유 77-1712 사목회장 **황의옥**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 반미사 : 26일(수) 오후8시, 5반-김동일(85-1852)  
 1.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전교를 위한 2차헌금이 실시됩니다.  
 2. 북전주지구 사목협의회 : 25일(화) 오후8시 장소-중앙성당사제관  
 3. 유아세례 : 28일(금) 자세한것은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4. 모 임 : 재속형제회-다음주일(30일) 오후2시  
 5. 청년야의 체육대회 : 오늘, 10시30분 덕진시민공원 \*청년은 꼭 참여하여 기쁨을 같이 나누세요.  
 6. 공소미사 : 다음주일(31일) 오후4시30분  
 7. 혼배예정자 : 한달전에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필히 교구혼인장 좌 수료-10월은 30일)  
 지남주봉헌금 : 1,174,730원  
 교무금 : 598,000원

##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76-0961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 ※ 오늘은 전교주일 : 특별헌금 있음  
 1. 오늘은 애령주일 : 선령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 금성회 : 차주공식미사후 3. 금암회 : 25일 저녁 4. 꾸리아회의 : 오늘 오후2시  
 5. 전신자테니스대회 : 오늘 오후1시(전북농대테니스코트) 참가비 5,000원  
 6. 유아세례 : 28일 저녁미사(대상자는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7. 가정방문 : 수(22만 23만) 목(24만) 금(25만)  
 8. 신설본당 신축헌금 모금 : 차주 미사중실시  
 9. 금주전례 : 해설-박영근 봉헌-문승욱부부  
 복사-이창성 정하용 기도-5반, 6반, 7반  
 10. 차주전례 : 해설-문승욱 봉헌-양재순부부  
 복사-장유진 영영섭 기도-8반, 9반, 10반  
 11. 미사안내 : 하늘의 문Pr 차주-예언자의 모후Pr  
 지남주봉헌금 : 새벽171,400원(187명) 공식354,820원(381명) 저녁137,830원(186명) 합계711,430원  교무금 : 1,015,700원

##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1. 전교주일입니다 : 2차 헌금 있습니다.  
 2. 예언자의 모후 꼬미씨울 회의 : 오후2시(성당에서)  
 3. 10월 전례분과 모임 : 26일 저녁7시30분  
 4. 10월 구역장·반장 모임 : 26일 오후2시  
 5. 10월 청년들 만남의 날 : 28일 오후7시  
 6. 금주 가정방문 : 덕진5반  
 7. 고백성사 : 29일 저녁미사 후(손님 신부님)  
 8. 금주전례 : 해설-박기자 복사·독서-교육분과  
 기도-팔복4반  
 차주전례 : 해설-민운식 복사·독서-사목회  
 기도-덕진1반  
 9. 금주본당 청소 : 천사의 모후Pr-29일 오후1시30분  
 지남주봉헌금 : 733,700원  교무금 : 869,000원  
 페루선교사2차헌금 : 320,130원

##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1.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2차헌금)  
 2. 예비자 교리 : 일반-목(오후7시30분), 주부반-목(10시30분), 중·고학생-토(오후6시). 많은 인도 바랍니다.  
 3. 구역미사·모임 : 미사(25일)-동산4구역, 모임(28일)-팔복 2·4구역, 나눔찬치(26일)-동산1구역  
 4. 모 임 : 오늘 공식미사후-사목회 차주일요일 시-청년연합회  
 5. 수녀님 방문 : 26일-빈첸시오, 28일-바다의 별Pr  
 6. 금주청소 : 증기자의 모후Pr 차주-은총의 어머니Pr  
 7. 금주전례 : 해설-김택천 독서①최영조 ②김영원  
 차주전례 : 해설-손태규 독서①신희우 ②김정숙  
 지남주봉헌금 : 285,070원  교무금 : 302,000원  
 수요헌금 : 21,500원

##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성필**  
 사무실 사목회장 **박병열**

- ※ 벽돌헌금 함 : 우리의 정성어린 벽돌 한장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 것갈류 판매 : 성전 신축을 위한 각종 것갈류를 판매 합니다.  
 1. 모임 : 차주-꾸리아, 30일 공식미사후 방주회, 30일 저녁미사후  
 2. 레지오 단원및 전신자 교육 : 10월25일 저녁미사후 성모님 발원 영화 상영 주회-꾸리아  
 3. 오늘은 전교주일 : 2차헌금이 있습니다.  
 금주본당청소 안내 : 애덕의 모후 차주-사랑하을 모후  
 금주미사 안내 : 사랑하을 모후, 선교 차주-인자하신 어머니, 전례 금주미사 전례 : 해설-이경자 독서①김식천 ②오영순 차주 : 해설-이경자 독서①이상규 ②이소근  
 지남주봉헌금 : 256,650원  교무금 : 116,500원

##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무실 사목회장 **소병울**  
 수녀원 4-1142

1. 사목회 임원및 지도자 연수회 : 11월 6일 오전9시 가톨릭센터 대상-분과위원 각단체장, 구역장, 반장 회비2,500원  
 2. 성인세례식 : 30일 공식미사중  
 3. 주일학교 가을소풍 : 23일 왕능(예비군 훈련장) 글짓기 사생대회 준비(도시락지참)  
 4. 병자봉성체 : 26일 대상자는 미리 신청바랍니다.  
 5. 제대회 : 28일 오후2시  
 6. 금주본당청소 : 송천3구역 29일 오전11시  
 7. 금주전례 : 해설-서복자 독서·기도-홍보분과  
 차주전례 : 해설-이건장 독서·기도-청소년분과  
 지남주봉헌금 : 310,740원  교무금 : 217,000원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 84,860원

## \*숲정리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 ※ 오늘은 전교주일 입니다(전교를 위한 2차헌금 실시)  
 1. 오늘 세례를 통해 주님의 한형제, 자매가 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오늘모임 : 요한회·꾸리아·12사도회  
 3. 금육일 단식일 : 28일(금)  
 4. 본당 전신자대상 피정실시(10월29일~30일) 피정비-1인5,000원 피정을 위해 협찬금도 접수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피정을 위해 똑같이 목주기도를 하루에 한단씩 바칩시다.  
 5. 다음주일 : 초등부 성지순례 장소-황새바위 참가비-1인당 1,000원 준비물-도시락, 모자, 미사준비(본당에 9시까지 집결) 성지순례 관계로 본당에 아동미사 없음.  
 6. 29일 : 병자방문, 유아세례  
 7. 금주본당청소 : 화-사랑하을 모후 토-파티마의 모후  
 8. 미사안내 : 평화의 모후 9. 미사해설 : 홍성조  
 10. 금주전례 : 독서·기도-강두호 전복순 봉헌·기도-강원모·박봉자 차주전례 : 독서·기도-김영일 장형순 봉헌·기도-김충철 김영해  지남주봉헌금 : 378,900원  교무금 : 294,000원

##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1. 꾸리아 월례회의 : 23일 오후2시 장소-돋은 피아노 학원  
 2. 자모회 : 27일(목요일) 어머니 미사후  
 3. 유아세례 : 30일 저녁7시 대상자는 사무실에 미리 신청하세요.  
 4. 성전신축에 관심을 가지시다. 신앙과 남부에 정성을 다합시다.  
 5. 환자 봉성체 : 10월28일 금요일 9시30분 환자모신 가정은 사무실에 연락주세요.  
 6.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이웃전교에 기도와 정성을 다합시다.  
 7. 본당 기쁜소식(베소라성서) 모임에 정성을 갖고 참석합니다.  
 8. 성당 긴의자 신청수 현재 39조, 세대상 1조씩(8만5천) 봉헌바랍니다.  
 9. 본당 비품은인을 구합니다.  
 전자오각간, 성세대(50만) 온풍기(150만) 책장(30만) TV(89만) 세탁기(55만) 비품장(50만) 제의놓는장(20만) 강론대(30만) 비품함(50만) 칠판및 오피판(30만) 주방기구(100만) 찬장(50만) 수녀원 성당 교리실 케텐 일체 연락주세요.  
 지남주봉헌금 : 668,440원  
 성전신축을 위한 2차 헌금 : 310,100원